

# 전주 우수 향토기업 성장 돕는다

### 시, 17일까지 기업 인증제 참가업체 모집

### 세계화 가능성 업체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전주시는 기업인 사기 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향토기업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우수 향토기업 인증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향토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향토기업을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개사 정도를 선정해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각종 행사·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앞서, 시는 지난해 (유)상신기업 등 10개 업체를 선정해 바 있다.

시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수출상담회와 해외박람회,

해외지사화사업 등 기업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세계화 가능성있는 우수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참가기업 접수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시는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 향토기업 인증기간은 5년이다.

안동일 시 중소기업과장은 "향토기업은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뤄왔다"며 "우수 향토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접수서류 안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시대 관동 문화재술사 야심작... 전주문화재 폐막야행

#### 14일 한옥마을 일원서

아시아 문화심장 전주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다양한 문화재와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색다른 야간 풍경을 다양한 공연과 함께 즐기는 전주문화재야행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오는 14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풍남문 일원에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인 '2018전주문화재야행'의 폐막야행을 진행한다.

'문화재 술사의 8(팔)야심작'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야행에서는 '조선'을 모티브로 전주의 수려한 문화와 정신을 읊조려 담아낼 수 있도록 문화재 야간개방과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야행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폐막야행은 14일 오후 6시 어진숙에 잠들어 있던 태조 이성계가 역사의 문을 열고 경기전 밖으로 나와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퍼포먼스로 시작되며 오후 8시부터는 경기전 광장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메인공연이 펼쳐진다.

'판소리 신동'으로 널리 알려진 유태평양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공연은 전통음악에 현대적 색채를 간직한 두댄스(DO Dance)무용단과 '극단 깎두기', '버리극단', '연희극단'이 유의의 무대를 통해 경기전 광장의 밤을 수놓게 된다.

또한, 이날 야행에서는 전주의 아름다운 야경과 문화재의 숨결이 재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오는 14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풍남문 일원에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인 '2018전주문화재야행'의 폐막야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태조 이성계 방문객 맞이 퍼포먼스로 시작

#### 두댄스 무용단·버리극단 등 무대 올라

#### 왕과의 야행 등 진행... 밤 11시까지 야간입장 가능

발견될 수 있도록 구성된 △왕과의 야행 △시간여행자의 풍남문 △거리의 화공 △이야기버스킹 담화 △거리의 수자 등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사전에약으로 진행되는 심야 특화프로그램인 '왕과의 야행'은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경기전 달빛 아래 여담을 나누는 왕과 왕비와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시간을 걷는 심야 특화프로그램으로,

15일 0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경기전에서 진행된다.

풍남문 일원에서 진행되는 '시간여행자의 풍남문'은 풍남문이 간직한 역사적 배경을 플래시몹과 전통 무예를 통해 풍남문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전동성당 앞 태조로에서 진행되는 '거리의 화공'은 조선 화공 복장을 착용한 미술 전공인들이 여진

에 등장하는 용포와 흥원사의 배경 화폭에 관객의 얼굴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을 술사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이야기버스킹 담화'는 경기전 돌담길 아래에서 진행된다.

이밖에, 경기전 서쪽 돌담길 태조로에서는 유료프로그램으로 '거리의 수자 실록 만들기, 목판 인쇄 체험, 한지 등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는 닭싸움과 팔씨름, 제기차기, 문화재 OX퀴즈, 의자 앉기 등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재민속놀이한마당'도 펼쳐진다.

야행이 진행되는 이날은 오후 11시까지 경기전 야간입장이 가능하며 늦은 시간 한옥마을을 찾는 관객을 위해 어진박물관과 한옥마을역사관, 최명회박물관, 전주전통술박물관, 교동미술관, 전주부채문화관, 전통성당 등 한옥마을 내 문화공간 7곳도 22시까지 특별 개방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문화재야행을 통해 전주가 지닌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을 대만민국, 나아가 세계 속에 각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행사 프로그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063-232-99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코스모스 찾아온 애벌레

전국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10일 전안군 농업기술센터 일대가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 선정

### 전주시, 5000만원 특교세 지원 외국인 통합서비스 제공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은 앞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방문하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용 허가, 통역요청 등의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외국인인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외국인 등록 등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그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센터 등 각각의 정부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한곳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고용상담, 외국인 인권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시는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은 현 중앙시장 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층 중 2층을 리모델링 한 후 다문화플러스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 시는 센터 구축 이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관련(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등 근로자 상담(외국인 이주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교육청 다문화지원센터)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 이해(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 등이 한곳에서 이뤄져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상주 및 과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거나 고용노동지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민원 등 간략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여러 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주자 중 70%를 차지하는 비귀화자(약 1,500명)는 2년에 한 번씩 체류비자 연장을 해야 하며 단순노동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중간에 사업장을 단순이동시에도 고용허가제 민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구축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됐던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의 서비스도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개소식을 갖고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구축되면 전주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거주할 수 있고,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삼천변 옛 쓰레기매립장, '종합생태학습장' 으로

### 전주시, 내년 6월까지 홍산-서곡교 구간 매립쓰레기 제거 후 조성

전주시가 삼천을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삼천 변 옛 쓰레기매립장을 종합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삼천 변 옛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내년 6월까지 총 43억원을 투입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 등 다양한 수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종합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 구간 주변에 매립된 약 5,943톤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맹꽁이서식지와 생태습지, 수생태계 관찰데크, 탐방로 등을 만

든다.

종합생태학습장이 들어서는 홍산교 부근은 하천 주변에 위치했던 옛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악취발생과 환경오염을 유발했던 곳으로, 이곳의 매립쓰레기를 제거하여 수생태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선정된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새만금환경청과 협력해 삼천 상류지역에 늦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했다.

또, 삼천 하루 서신동 전주천·삼천

합류점 부근에는 수달보금자리도 조성하는 등 수생태계 복원에 힘써왔다.

시에 따르면 향후에도 삼천과 전주천은 물론, 아중천과 금학천 등 모세혈관처럼 얽혀진 전주의 모든 물길을 되살려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하천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면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을 통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활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세정과 박남미 팀장

#### 전북 세외수입연합회 '최우수'

전주시는 시청 세정과 박남미 세외수입팀장이 지난 6일~7일 군산에서 열린 전라북도 주관 '2018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박팀장은 이번 연구과제 발표에서 재정개혁분야의 연구과제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전문단 체납닥터 운영'을 주제로 발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전문적인 지방세징수담당공무원을 징수멘토로 선정, 체계적인 부과 징수관리가 미흡한 세외수입담당공무원의 징수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부여 실무위주의 체납처분방법의 개별지도와 피드백을 통해 세외수입담당공무원의 징수마인드 제고와 업무역량을 강화한 결과, 과년도 이월체납액을 2016년보다 57억을 초과징수하는 성과위주의 결과물을 발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남미팀장은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 전주비빔밥축제 '맛있는 프리마켓' 판매자 모집... 20일까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전주비빔밥축제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이 전주시민들이 만든 다양한 간편 음식(take-out)들을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맛있는 프리마켓'에 참여 할 음식 판매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맛있는 프리마켓'은 비빔밥축제

기간 동안 매일 전주한옥마을 완판분문화관 앞 거리에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전주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장터다.

모집 대상은 축제장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판매가격 3,000원 내외의 테이블어울형 음식으로, 전주시에서 주수(사업장소재지)가 되어있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음식의 주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모든 재료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원료와 색소, 향신료 등 허용되는 첨가물만 사용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전주비빔밥축제 누리집(www.bibimbapfest.com)에서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조직위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 △메뉴와 가격의 적합성 △차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수사받던 교도관 숨진채 발견

### 익산경찰, 외상 은적 없어

검찰 수사를 받던 교도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6분께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한 정자에서 교도관 A(45)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동산동 마을 주민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 외상 흔

적은 없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재소자 B씨에게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휴대전화 제공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수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